

P-17 성견의 2급 치근 분지부 결손에서 자가 골막 이식에 의한 치주조직 재생효과

남승지, 김영준, 정현주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본 실험은 성견의 하악 소구치에 2급 분지부 골 결손을 형성하고 성견의 협측 견치부에서 채취한 자가골막을 이식하였을 때 치주조직의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은 잡종 성견 6마리를 이용하였다. 실험군은 모두 3개 군으로 나누었다. 형성된 골결손부에 치근면 평활술만 시행하고 치주관막으로 봉합한 군을 실험 I군으로, 자가골막만 이식한 군을 실험 II군, 골결손부에 자가골막과 Calcium carbonate 이식을 병용한 군을 실험 III군으로 하였다. 희생은 각각 술후 2, 4, 12주에 시행하였고 광학 현미경적 관찰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임상적으로는 별다른 사건 없이 잘 치유되었다. 광학 현미경적으로 관찰시 대조군(실험 I군)은 상피의 하방증식이 흡부위까지 진행되었으나 자가골막을 차폐막으로 이식한 실험 II, III군에서는 상피의 하방증식은 미약하였다. 실험 I군에서는 치주조직의 신부착이 거의 얻어지지 않았으나 실험 II, III군에서는 치조골 재생을 포함한 치주조직의 신부착이 치관측 1/2이상 얻어졌다. 이식된 자가골막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흡수가 계속되어 12주째에는 완전히 흡수되어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자가골막 이식에 의한 치주조직 재생은 우수하였으며 상피의 하방 증식이 나타나지 않아 흡수성 차폐막의 재료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